제목	시나리오 내용
북한산의 주요 경관	정상부의 세 봉우리가 남북으로 빚어 내린 북한산의 비봉능선과 산성주능선, 도봉산의 포대능선과 사패능선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비바람에 의해 기묘하게 형성된 크고 작은 암봉, 암벽, 암석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자랑하고 있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대표할만한 곳을 꼽자면 역시 백운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이시나 백운대는 흰 구름을 허리에 두르고 솟은 바위라는 데서 유래하였고, 백운대에 오르면 서울시내와 근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봉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은 물론, 맑은 날에는 강화도, 영종도 등 황해의 섬도 보입니다. 인수봉은 암벽등반 코스로 암벽 등반 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봉우리 북쪽에 튀어나온 바위가 마치 아이를 업은 모양 같다고 하여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하여 부아악(負兒岳)이라고도 합니다. 고구려 동명왕의 왕자인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자리 잡고 살 만한 땅을 고를 때 이 봉우리에 올라 서울의 지세를 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운대의 남쪽에 있는 만경대는 주변 경관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로부터 국망봉이라 불렸는데요. 무학이 나라의 도읍지를 정할 때 여기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악장가사]에 북한산을 삼각산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을 최근에 이르기까지 삼각산으로 불러오고 있지요. [신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에 따르면 삼각산은 만경, 백운, 인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한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북한지]가 출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문화재의 소재지 이름과 국립공원의 이름으로 '북한산'이 사용되어 현재에는 삼각산을 대신하여 북한산이 공식 이름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만경대(799.5), 노적봉(716), 보현봉(714), 문수봉(727), 비봉(560), 형제봉(467), 원효봉(505), 의상봉(502)등 이름난 봉우리가 많이 있습니다.